

플라스틱 공장 화재 4000만원 피해

4월9일 오후 4시20분경 천안시 성환읍 D플라스틱 원료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480여㎡를 모두 태워 4000여만원(소방서 추산)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만에 진화됐다.

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원 200여명과 차량 1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플라스틱이 타면서 늘어붙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8/04/10>